

‘불교 수도’ 부산엔 벌써 봉축물결 넘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부산’ 부산시민연등축제 발진

“성대하고 환희로운 연등축제와 봉축대법회가 우리 부산 200만 불자들의 가슴속에 뜨거운 자긍심을 심어줄 것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채님오신날 봉축위원회(공동위원장 정여·허남식, 이하 봉축위) 결성법회가 3월 4일 오후 6시 코모도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봉행했다. 이날 결성법회는 발원문, 봉행계획발표, 대회사, 봉행사, 축사, 법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부산’을 슬로건으로, 그동안 불자만의 축제였던 ‘부산연등축제’를 부산시를 대표하는 문화축제로 변화·발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봉축위사무총장 자인 스님은 “부산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우리 고장 대표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금의 정성으로 준비해, 단순한 축제를 뛰어넘는 종합 불교 문화의 진수를 보여줄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정부와 부산에서 축제예산 3억원을 대폭 지원받아, 예년보다 풍성하고 수준 높은 불교문화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2009 부산연등축제가 4월 17일 봉축상징물 점등식을 시작으로 24~26일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법회 모습.

모으고 있다. 또 시민불자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연등행진에 일반인의 동참이 가능하며 우수작은 개인 및 단체로 나눠 총 10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이번 ‘부산시민연등축제’는 구덕종합운동장에서 봉축연합대법회 및 연꽃문화제, 한마음체육대회, 행진 연등 및 복장 시상식, 불자연예인 축하공연이 마련된다. 부산역광장에는 봉축상징물 점등식과 회향공연을 진행한다. 연등축제의 백미

‘연등행진’은 구덕종합운동장을 출발, 대청로를 경유해 부산역광장 특설무대에서 인기불자연예인과의 즐거운 축제를 끝으로 회향하게 된다. 정여 스님은 법어를 통해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부산, 나보다는 내 이웃을 먼저 위하는 따뜻한 마음의 등불을 밝히자”고 말했다.

정여 스님과 공동 봉축위원장을 맡은 허남식 부산시장은 “불교는 우리나라 전통문화 정답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종교인만큼 이번 축제를

정성껏 준비해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축제로 계승·발전시키자”고 축하했다.

이날 법회에는 봉축위원장 정여 스님, 수석부대회장 화산 스님, 상임

부대회장 정각 스님 및 설동근 공동위원장, 설동근 봉행위원장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법하게 이뤄졌다. (051)867-0501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2009 부산시민연등축제 주요행사 안내

일시	행사명	내용
4. 17(금) 오후 6시 30분 부산역광장	봉축상징물 점등식	대형봉축상징물, 오색연등 점등 축하공연
4. 24(금)~25(토) 양일간 광복로 일원	시민연등축제 봉축문화의 거리	불교공연, 문화전시 홍보 체험 부스
4. 26(일) 구덕종합운동장	봉축연합대법회	연꽃문화제-어린이 백일장, 사생대회, 전통놀이 한마당 한마음체육대회-승가와 재기가 함께하는 체육대회 어르신초청 무차말발공양 지역 어르신 5000여 명 초청 공양대접, 실버 공연 행진연등 및 복장 시상식-연등축제 참가 개인·단체에 총 상금 1000만원 시상 부산시민연등축제 축하공연 봉축연합대법회(오후 5시) 연등행진구덕종합운동장(출발)→대청로→부산역광장(회향) 회향공연 ‘다함께 하나 되어’

10년 맞은 ‘달리는 법당’ 신심 충전!

불국토를 찾아서
부산개인택시법륜회

부산시민이라면 고향과 모금함이 설치된 택시를 만날 때가 있다. 모인 돈을 도대체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는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걸을 판다고 눈을 흘겼다면 지금 이 글에 주목하자. 그들이 바로 길 위의 달리는 법당, 개인택시를 모는 불자들의 모임 법륜회다.

비밀일이 주2회에서 3회로 늘어나 가족이나 넉넉한 수입에 1년 중 한달 가까이를 꼼짝없이 쉬게 된 것. 김덕천 회장은 “원래 목요일에 쉬다가, 법이 바뀌면서 월요일까지 쉬게 되니 이를 일하고 하루 쉰 쉬게 됐다”며 “법륜회원 모두 개인택시사업자



창립 10주년을 맞는 ‘달리는 법당’ 부산개인택시법륜회.

부산개인택시법륜회는 1999년 2월 창립해 올해로 10년째를 맞았다. 창립 당시 270여 명의 회원으로 출범한 이래 지금까지 불심이 돈독한 회원들이 모여 활발한 신행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하지만 법륜회를 그저 개인택시사업자 중 불자들의 단순한 신행 모임이라고만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정기법회와 성지순례 뿐 아니라 봉사·복지사업을 행하기 위해 창립한 후 지난 10년간 법륜회의 이름으로 우리 사회의 낮은 곳, 아무도 눈길 주지 않는 어두운 면을 환하게 밝혀왔다.

매년 행편이 어려운 청소년을 위한 학자금 마련 및 즐거운 놀이공원 하루나들이, 정기총회 때는 지역 어르신에게 점심공양과 함께 경로잔치를 마련한다. 또 지난해 겨울 사랑 연탄배달의 성과가 좋아 올해부터 정례화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마산 국립결핵병원 등 장기간 투병생활을 하는 환우들을 찾아가 생필품을 후원하고 보살피는 등 다양한 사회

복지사업을 벌여왔다. 지난 10년 세월을 돌아보면 위기의 순간도 있었다. 2006년 즈음, 시 조례가 정한 개인택시

보니 이때 회원수가 확 줄어들어, 난관을 수습하고 신규회원을 영입해 간신히 극복했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3월 12일 흥남사에서 10주년 기념법회를 열 예정인 김덕천 회장은 “지난 10년을 돌아켜보면 낙동강이 범람해 수몰되고, 태풍이 휩쓸고 간 재해 지역에 우리 회원들의 발자취가 남아있으니 10년을 알차게 잘 지낸 것 같아 회원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요즘 법륜회는 복지기금 마련이 예전같지 않아 고민에 빠졌다. “워낙 전 세계 경제가 어렵다 보니 택시 안에 비치된 모금함이 텅 비어, 매년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금전달을 격년으로 바꿔야할지도 모른다”며 우려했다. 하지만 법륜회의 불심만큼은 더 깊고, 단단해졌다. “택시기사

를 천직으로 삼아 가정과 사업, 그리고 신행 활동 등 모든 면에서 상구보리 회회중생을 사명으로 삼고, 보시를 실천하는 참된 불자가 되겠다”는 이들이야말로 세상 모든 길을 불국토로 만드는 ‘달리는 법당’의 제복을 차려 입은 멋쟁이 주주스님들이다.

(051)503-1205 박지원 기자

“부산불교 성장 발판 되기를”

부산불교연합회 법당 개원

부산 200만 불자를 대표하는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회장 정여, 이하 연합회) 법당이 2일 양정불교회관 4층에 문을 열었다.

연합회는 20여 년이 넘게 부산 불교계를 이끌어 ‘불교 수도’란 명성을 얻었지만, 한동안 법당을 갖추지 못해 각지의 법당을 빌려 법석을 마련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따라서 이번 법당 개원을 통해 연합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개원 기념법회는 발원문, 개원사, 경과보고, 축사, 법어, 정

근 및 축원 등의 순으로 여법하게 이어졌다.

불교연합회장 정여 스님은 법어에서 “불교연합회 법당 개원이 18개 종단의 화합과 모든 불자가 마음의 고향인 불성으로 돌아가, 부산불교가 더욱 성장·발전하는데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법회에는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정여 스님, 수석부회장 화산 스님, 상임부회장 정각 스님, 설동근 연합신도회장, 홍경표 연합신도회부회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해 개원을 축하했다.

박지원 기자

불교영어 강좌

영광문화원, ‘무료’

영광문화예술원(사장 김윤환, 부산불교실업인회장은) 3월 14일~7월 11일 영어로 쉽게 배우는 ‘불교영어’ 강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교재는 <가장 행복한 공부> <The Most Joyful Study> <현대 심리학으로 풀어본 유식삼십송>이며, 이두석 국제포교사, 오창원前海동고교장, 육철우 영어학원장 등이 강사로 나선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2시 간격 6개월간 진행되고, 강의비는 무료로 정해졌다. 접수는 영광도서 1층 예매처에서 하면 된다. 한편, 영어와 불교의 일정 수준 이상의 심화과정도 개설된다. (051)816-9500

박지원 기자

“어려운 친구 우리가 도와요”

용담어린이집 ‘사랑의 저금통’ 기탁

일곱살 천진불들의 고사리손이 지난 1년간 모은 저금통을 ‘사랑의 열매’에 기탁해 화제가 되고 있다. (사)불국토 용담어린이집(이사장 해충) 유아 32명은 2월 17일 오후 공동 모금회 ‘사랑의 열매’를 직접 방문해 1년간 고사리손으로 저금한 ‘사랑의 저금통’ 128개를 기탁했다.

‘사랑의 저금통’은 전체 원생 128명이 ‘부모님 도와드리기’ ‘동생과 사이좋게 지내기’ 등의 착한 일을 하고 부모님께 받은 동전을 모은 것으로, 금액을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가득 차 있었다.

2008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1년간 진행된 이번 행사는 영·유아들에게 지역사회의 일원임을 인식시키고, 한 사람의 작은 사랑

이 모이면 큰 사랑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진행됐다. 원생들이 매일 말한 달걀 모은 돈을 저금통에 직접 저금하고, 동영상 교육 등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 관한 시정각각으로 나눔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쳐왔다.

용담 어린이집 어린이들은 “어려운 친구들을 돕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니가, 동생들도 착한 일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기뻐했다.

이에 ‘사랑의 열매’ 관계자는 “어른도 아닌 어린이 여러분이 모은 사랑의 돈인 만큼, 더 어려운 친구들을 돕는데 잘 쓸 것”이라고 약속했다. (051)624-5132

박지원 기자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2009년 장사성공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사업이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며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첫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기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생활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장사 성공을 기원하는 영험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불광사에서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슬이 달려 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보시가격: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 (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미용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 용실, 육육방,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원방, 각종소초센터,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용실, 방앗간, 공장, 주유소, 신세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2009년 제일 힘든 나가는 삼재시작! 나가는 삼재화를 소멸하고 승리하는 비방!

2007년 드는삼재 2008년 묵는삼재 2009년부터 나가는 삼재가 시작된 소띠,뱀띠,닭띠는 앞으로 2009년 말까지 제일 어렵다는 나가는 마지막 삼재해로 각별히 조심하고 자중자해야하며 근심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2009년 가는 삼재조심 소띠,뱀띠,닭띠

제일힘든 떠나는 삼재소멸과 365일 무탈 발원 금강저

지내야 한다. 드는해와 묵는해에 소띠,뱀띠,닭띠생들이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 문제에 휘둘려 고통받고,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실패하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일마다 뜻대로 되는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남은 2009년말까지 나가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완벽한 비방을 하는것이 안전합니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중 삼재화를 막아 액란을 모면하는 비방으로 중생들에게 부처님법구인 금강저를 품에 지니고 다니게 하고 나가는 삼재해에는 365일간 삼재소멸 불공과 무탈기원을 합니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비방을 잘하고 자중자해야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

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삼재소멸금강저는 제일 어렵다는 나가는 삼재소멸 축원불공을 마치고 불광사에서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드립니다. 금액45,000원 문의 (02)741-4488
입금농협: 032-12-193445 이상하

1929년생 뱀띠	1957년생 닭띠	1985년생 소띠
1933년생 닭띠	1961년생 소띠	1989년생 뱀띠
1937년생 소띠	1965년생 뱀띠	
1941년생 뱀띠	1969년생 닭띠	* 적색 글씨에
1945년생 닭띠	1973년생 소띠	해당되는 차
1949년생 소띠	1977년생 뱀띠	악삼재입니다.
1953년생 뱀띠	1981년생 닭띠	

천연백수정108 염주

승리의 염주,행운의 염주,불멸의 염주



인연의 귀인을 만나 성공하는 인연염주! 건강 장수와 행운이 함께하는 평생염주!

영원히 살아 숨쉬는 천연백수정 108 법륜 염주가 수입되어 시판하고 있어 화제다. 천연백수정은 미륵 부처님 이마에 정안을 하는 보석으로 어둠과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고 밝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영원히 점안해 있는 것이다.

인도에서는 천연백수정을 불멸의 부처님 보석으로 간직하고있어도 사업이 망하지 않으며, 병든 중생은 건강장수하고, 인연의 짝과 인연의 귀인을 만나 근심 걱정이 해결되고 그 인연의 만남으로 원하는 계획이 성공되는 행운의 보석이 라 해. 인도 부유층 사람들이 천연백수정을 염주로 만들어 예불법구로 사용하고 있다.

고대 인도 부유층 인사들과 아라비아 거상들의 전통모자에는 행운을 안겨주는 불멸의 천연백수정을 부착하고 다니는 것을 영화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것이 인연법이다.

불자라면 누구나 염주는 필수품!

한사람의 인연의 귀인을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 환자는 인연의 의사를 만나면 고통이 살아지고, 사업가는 한사람의 인연으로 사업이 성공되고, 원대한 불사도 한사람의 인연으로 불사가 완성 되는것을 볼수있다.

불멸의 평생염주인 천연백수정 108염주는 사용하실분의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시면 100일 축원불공을 올리드리며108염주의 시판기간으로 항상 가지고 다니는 천연백수정 단주를 특별선물로 드립니다. 가격:95,000원 (카드분할가)

문의 (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